

날 수 있는 소아마비였건만 그 시혜마저 그를 멀러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늘어지가는 다리, 휘어가는 등을 가족에게 보이기 싫어 남몰래 고민하며 보낸 어린 시절을 그는 더 이상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북으로 간 아버지로 하여 그들 가족에게 씌워진 멍에는 '빨갱이'였고, 그늘은 아들로 길기만 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방침대에 불려 다니던 어머니는 그 저속 같은 나날이 험겨워 2남 3녀 5남매를 이 땅에 남겨놓고 태평양 너미 미국 땅에 정착한다.

남보다 짧고 가는 왼쪽 다리, 그 불균형의 여파로 뒤동그러진 엉덩이와 허리, 그리고 그가 평생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의 멍에를 말하듯 오른쪽 날갯죽지 뼈마지 낙타의 육봉처럼 솟아나고 말았다. 육신은 뒤틀리고 일그러졌을지언정 그의 정신은 자신처럼 장애를 지고 사는 사람을 돕는 의사를 꿈꾸었다. 그러나 의과대학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일단 영어라도 배워두자는 마음으로 외국어대학 영어과에 진학했다.

건강한 신체를 담보하지 않은 대학 졸업장은 그의 삶을 책임지기에는

1 'Intimate Encounter', 브론즈, 81×23×13cm, 2006 2 'Caesura #4', 브론즈, 80×23×15cm, 2008
3 'A Family', 브론즈, 200×96×55cm, 2005 4 'The dressed', 브론즈, 200×50×43cm, 2008

너무도 가벼웠다. 내부에서 끓어오르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욕구를 거부할 수 없던 그는 미국 유학을 결심했다. 그러나 빨갱이 딱지가 붙은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유학의 길은 멀고 험난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던가. 믿을 것은 자신의 노력뿐이라는 다짐과 함께 그는 마침내 미국 땅에 건너갈 수 있었다. 그곳 대학에서는 그의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그는 외국인일 탈 수 있는 장학금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으며 미술의 기초인 그림부터 시작했다. 지도 회사와 신문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일 하루 2~3시간 쪽잠을 자는 고단한 삶을 살았다.

마침내 1976년 미국 페퍼다인 대학을 수석 졸업하는 영광과 함께 L.A. 시립미술관에서 초대전을 열었다. 그러나 수석 졸업의 영광도, 그림에 대한 열정도 뺨이 되어주지는 못했다. 형님의 소개로 만난 제주 아가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 그들의 생계 또한 그의 몫이었다. 그는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었다. 보헤미안 생활을 힘들어하는 아내와 함께 그림을 알아주지 않는 그 땅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을 꺾어버리고 아무에게

